

가지산 호랑이...아직 생생한 목소리

전국비구니 초대총재 인홍 스님 일대기 '길 찾아 길 떠나다' 입적 10주기 맞아 나와



1996년의 인홍 스님. 주영덕씨의 사진



4월 24일 석남사에서 봉행된 인홍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제에는 원로 중진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제공-김민숙 사진작가

지금으로부터 2천 6백여 년 전,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 문 앞에서 일흔 다섯 살의 노파가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다. 노파의 뒤에는 사기족 여인 5백여 명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노파는 바로 부처님을 양육해준 이모 마하파자파티였다. 5백여 명의 여인들과 함께 출가를 하기 위해 기원정사를 찾았고 부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완강했다. 여자는 출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 뜻이었다. 마하파자파티도 완강했다. 출가하여 무상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5년 전 부처님이 이미 '거절' 했음에도 식을 줄 몰랐고 다시 출가를 간청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은 것이다.

결국 부처님은 마하파자파티의 강한 열망과 아난의 간청으로 여자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그러나 '8경계법'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다.

중국에서도 이름을 떨친 비구니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철마 스님의 이름이 높다. 9세기 중반 이후 활동한 철마 스님은 위산영우 스님의 회상에서 수행했다. 선지가 높고 기개가 강해 비구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큰 걸음을 놓았다. 철마 스님의 행적은 벽암록 제24칙 '철마도위산(鐵磨到滄山)'이란 화두로 전한다. 또 조주와 함께 남전보원의 법을 이은 자호 선사와도 법거랑을 맺지게 했는데 자호 선사가 철마 스님의 뺨을 후려갈기는 대목이 압권이다.

우리나라의 비구니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을 숨겨 주었던 모례(毛禮) 장자의 누이 사씨가 비구니로서의 첫 기록이다. 백제의 선승 범명(法名) 스님은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를 전파했다. 고려 시대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문도 가운데에는 중민 청원, 오연 회원 등의 비구니 스님들이 1213년 수선사 안거에 참석했다고 <진각국사어록>에 전한다. 나옹 화상의 제자 가운데서도 화엄 스님이 이름을 드러낸 것으로 전한다.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불교정화'로 이어지는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태산거목 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이 함께 했던 것이다.

인홍(仁弘 1908-1997) 스님의 한 생애는 근 현대 한국

불교사에 걸쳐져 있다. 조선조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 온 불교가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로 새로운 시련을 겪고 다시 민족적 시련 속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할 때 비구니 승단의 위상을 세우는데 언제나 앞장섰던 스님이 인홍 스님이다. 불교전문 작가 박원자씨가 인홍 스님의 생애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길 찾아 길 떠나다>(김영사, 1만3000원)는 인홍 스님의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한국불교의 근현대사이기도 하다. 자신에게나 후학들에게 엄격하여 '가지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스님의 일생은 치열했다. <길 찾아 길 떠나다>는 조계종 중흥 법친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불필 본각 스님 등 후학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실렸으며 각종 기록들도 포괄적으로 인용되어 인홍 스님의 생애와 불교 근현대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인홍 스님의 후학들이 근현대 한국 비구니의 사표를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한국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의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구니 스님의 위상을 세운 인홍 스님의 일생을 통해 향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이 더 올바르게 이어지길 바라는 속내다.

비구 승단에 '봉암사 결사'가 있었다면 비구니 승단에는 '성주사 결사'가 있었다. 이 두 결사는 한국 불교의 현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수행불교' '정법불교' 운동이다. 성주사 결사는 1951년 8월 인홍 스님을 주축으로 한 4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봉암사 결사'(1947년)의 정신을 이어 정진일념을 실현했던 큰 불사였다. 이어 인홍 스님은 태백산 홍제사 등에서도 간담없는 수행을 했고 가지산 석남사를 중창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인홍 스님은 성철 스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성수 스님 일타 스님 등과도 토론 수행을 함께 했다. '불교정화'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활동했고 가지산 석남사를 중창하

나 손발이 닳도록 일했다. 인홍 스님의 한 생애는 구도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숭고한 것인가를 한 눈에 보여준다.

<길 찾아 길 떠나다>의 가치는 출간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아 4쇄를 돌파한 발행 기록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입문예 기자 mian1@hanmail.net

'중국인' 얼마나 아시나요?

"중국인이란 무엇인가?"이 의문에 대한 참신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시선이 이 책에 들어 있다. 중국인은 유전자적으로 패의 기질과 양의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점을 전제로 하여 역사, 문화, 인구, 지리학 등 여러 갈래에 걸쳐 중국인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난다. 중국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안으로서,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패의 중국인 양의 중국인 가토 도루 지음 한명희 옮김 수확재 | 1만2000원

일본 히로시마대 조교수인 저자는 중국인의 기질을 장사꾼의 재주와 현실주의적 측면을 뜻하는 '패'(貝), 유교로 상징되는 이념성은 '양'(羊)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다.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던 은나라는 농경민족으로서 '패'의 기질을 가졌다. 반면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는 하늘을 두려워해 엄격한 의식을 지켰으며 양을 제물로 바쳤다.

김주일 기자

노자사상의 핵심은 '지금의 삶'

이 책은 30여년간 대학에서 노자를 가르쳐온 저자가 '노자철학'의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도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기술돼 있다.

저자는 '노자의 '도'는 우리 인간 곁에 있고, 우리 생활속에 있으며, 바로 우리마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노자사상의 핵심은 '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다. 즉 유한한 생명이라는 존재론적 사실로부터 무한으로 통하는 '무위(無爲)'의 실천 방법을 통해 생명의 본래 모습인 질박 혹은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 존재의 고통은 유위, 유지, 유욕에서 온다고 보았다"고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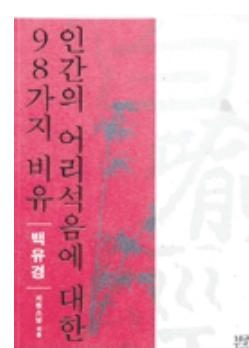


노자-생명의 철학 왕방웅 지음 천병돈 옮김 작은이야기 | 1만5000원

김주일 기자

끝내주는 비유...가슴에 새기는 교훈

뺨 한 마리가 있었습니까. 그 뺨의 머리와 꼬리는 늘 다투었습니다. 하루는 머리가 앞에서 먼저 움직이려고 하자 꼬리가 나뭇가지처럼 휘감고 버텼습니다. 하는 수 없이 머리가 양보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꼬리가 앞서 가다가 불구멍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뺨의 머리와 꼬리가 다투는 이야기중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98가지의 비유/백유경 지음 스님 지음 부글 | 1만1000원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음에 관한 것들이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 자신을 닦는 수양을 게을리 하는 사람,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는 사람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김주일 기자

반 고의 정신세계에 젖은 라데팡스에서 시간들

<에세이문학> 발행인 맹난자 대표는 2000년 5월 프랑스 파리의 교의 라데팡스에 있었다.



라데팡스의 불빛 맹난자 지음 수필과비평가 1만원

상펠리체 대로의 개신문을 빠져 나와 뒤쪽으로 곧게 뻗어 있는 그랑드 아르메 대로를 지나 센 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가 라데팡스 지역이다. 이곳에 베이 스텀프를 차린 저자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집이 있는 파리 북부 오베르를 찾는다.

저자와 고흐와의 첫 인연은 4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의 대학시절 일본 문고 판화집에 있는 '슬픔'이란 제목의 그림을 통해서였다. 무릎 위에 팔짱을 끼고 그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늙은 나무의 연필스케치였는데 암컷의 비애를 느끼던 그림이었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반 고흐의 집을 방문하며 그의 체취를 들어마신 저자는 마을의 공동묘지에 있는 고흐의 묘소로 향한다. 몇 년전 세계 유명문학자들의 묘지를 찾아 쓴 감회를 적은 '묘지여행'의 작가답게 고흐의 묘지에서도 역시 저자는 많은 상상에 잠긴다.

이 책은 라데팡스의 추억뿐만 아니라 저자가 '어머니' '서정주' '오상운' 등 삶 속에서 혹은 문학기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과 단상을 특유의 간결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기술해 놓았다. 삶과 죽음, 꿈과 욕망의 다양한 소재가 노장과 불교적 사유로 깊이를 더해주는 글들이 가득해 책장을 덮고나도 흥분한 많은 사색에 잠기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북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민희 편저	운주사
2	연재가 이 세상에 없을 당산을 사랑한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룸미디어
4	문명은 문, 빛명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에이전트
5	작편	이산 수메도	대한불교진흥원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여백 살가지는 했는가	황인	휴먼앤북스
9	곰개 높은 절집	삼인보	지안
10	무비 스님의 신명령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북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풀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승.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승>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왕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승 1-10권 | 105,000원 (30%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술 법회가 5월 6일(日) 열립니다.
 ◆서울선원 ☎02-522-0122(매일 첫째 일요일) 오전11시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승/5월20일(매일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선원 ☎051-545-2460
 ◆반야심경/5월27일(매일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제22회 불교 불전합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참신한 젊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실천 2개 분야에 걸쳐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전반에 걸친 학문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하고 수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개인(연령제한 없음) 또는 단체
-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1000만원
- 3. 후보자 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부처님,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총장·대학원장, 기관 및 단체의 장)
- 4. 접수마감** : 2007년 5월 30일까지
-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중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드레비앙 148
전화 02)762-5624~6 / 전송 02)762-5627

不二會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합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